KOCHI 자료 15-011

한·중 FTA의 효과

중국 진출 기업 및 바이어 긴급 설문조사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한·중 FTA의 효과

중국 진출 기업 및 바이어
긴급 설문조사

Contents

요약 04

Ⅰ. 조사 개요 06

Ⅱ. 전체 설문조사 결과 07

Ⅲ. 중국 진출 우리기업 vs 중국바이어 조사결과 08

Ⅳ. 업종별 의견 (상위 4개 업종) 10

Ⅴ. 소재지별 의견 14

Ⅵ. 유망품목 선정 16

Ⅶ. 직접 듣는 업계 반응 18

[별첨1] 바이어 설문조사 양식 20

Summary

Summary

한-중 FTA 발효시 중국내 기업의 69%가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거나 거래선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은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KOTRA가 중국지역 기업 336개사 (한국 진출기업 128개사, 중국 바이어 2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설문조사는 2015년 11월 19~23일간 중국지역 15개 무역관의 전화 및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입 확대의 이유로는 관세철폐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가격인하가 64%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비관세장벽 철폐 효과(17%),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16%)도 적지 않게 나왔다.
이러한 응답은 한·중 FTA의 효과가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비관세장벽 완화 기회 활용과 한·중 FTA 활용 마케팅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진출기업 보다는 중국 바이어의 대한국 수입 확대 의사가 높다는 점도 이번 조사결과의 특징이다. 대한국 수입을 늘리거나 기존 수입선을 한국으로 돌리겠다는 응답이 한국 기업은 49%에 불과한 반면 중국 바이어는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 활용에서 중국 바이어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Summary

업종별로도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응답을 많이 한 4개 업종(농식품, 전기전자, 기계, 유통) 가운데 대한국 수입을 늘리거나 수입선을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유통(84%) 〉 농식품(81%) 〉 전기전자(64%) 〉 기계(63%) 등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의 효과가 농식품 및 소비재 분야에서 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업종별 차이는 한·중 FTA 유망 품목에 대한 전망으로도 확인된다. 유망품목을 묻는 질문에(복수응답) 가장 많이 꼽힌 품목은 화장품(20.5%) 〉 가공식품(13.6%) 〉 생활용품(13.2%) 〉 전자(9.2%) 등 순이었다.

KOTRA는 이번 조사결과를 한·중 FTA 시대 우리의 대중수출 확대 방안 모색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철폐 효과는 물론 한·중 FTA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을 대중국 마케팅 전략으로 확대·연계하고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 활용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한국제품을 많이 수입하던 한국업체 외에도 대한국 수입 확대 의향을 많이 보여준 중국 바이어의 한·중 FTA를 활용한 대한국 수입 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I. 조사 개요

추진 배경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중국 현지 바이어의 의견 수렴으로 FTA 효과 및 전망 분석

바이어 설문

–

KOTRA 중국지역
15개 무역관 활용
긴급 설문조사

조사대상

중국 바이어 및 중국진출 한국업체 336개사

· 중국 바이어 208개사, 중국진출 한국업체 128개사

8대권역

북부연해 87, 동부연해 63, 남부연해 59, 황허중류 36, 창장중류 31, 서남 33, 동북 27, 서북 0(응답업체 없음)

무역관

베이징 47, 상하이 32, 광저우 28, 칭다오 40, 청두 25, 우한 26, 시안 23, 선양 25, 난징 15, 충칭 10, 창사 5, 정저우 15, 항저우 15, 샤먼 15, 선전 15

업종별

수송장비 6, 기계 27, 전기전자 39, 섬유의류 22, 의료/의약품 14, 화학 14, 농업/식품 54, 오락 5, 사업서비스 11, 유통 44, 에너지/환경 7, 펄프/종이 6, 물류 23, 교육 4

조사방식

KOTRA 무역관 직원이 유선 전화 설문 및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5년 11월 19일(목) ~ 23일(월) 3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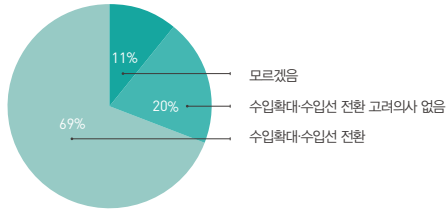
설문내용

대한국 수입 및 수입선 전화 수요, FTA 효과에 따른 유망품목 등

Ⅱ. 전체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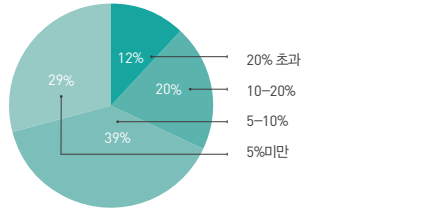
대한국 수입 확대 및 수입선 전환(이하 수입 확대로 약칭) 응답이 69%로 절대 비중을 차지

수입확대 혹은 수입선 전환 의사 없음 응답은 20%, 모르겠음은 11%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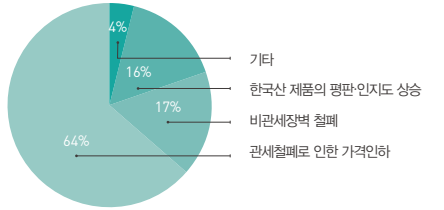
수입확대 응답 중 71%가 5% 이상 확대하겠다고 응답

수입을 5~10% 확대 하겠다는 응답은 39%, 10% 이상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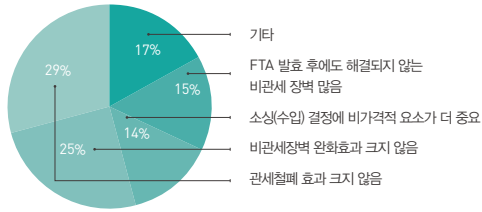
수입 확대 응답 이유로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가 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비관세장벽 철폐(17%),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16%), 기타(4%) 등 순으로 나타남



대한국 수입 및 소싱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음(29%), 비관세장벽 완화효과가 크지 않음(25%) 등 순으로 답변

이외에 FTA 발효 후에도 미해결된 비관세장벽 존재(15%), 소싱(수입) 결정에서 비가격적 요소가 더 중요(14%) 등도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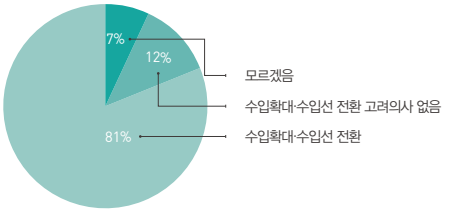


Ⅲ. 중국진출 우리기업 vs 중국바이어 조사결과

1. 중국바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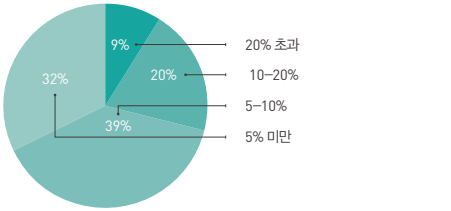
대한국 수입 확대 및 수입선 전환 응답 바이어가 81%로 절대 비중을 차지

수입확대 혹은 수입선 전환 의사 없음 응답은 12%, 모르겠음은 7%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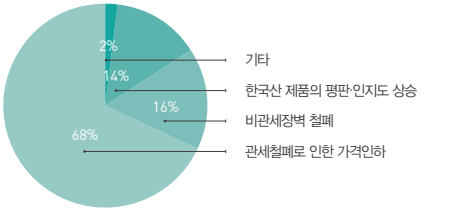
수입확대 응답 바이어 중 68%가 5% 이상 확대하겠다고 응답

수입을 5~10% 확대 하겠다는 응답은 39%, 10% 이상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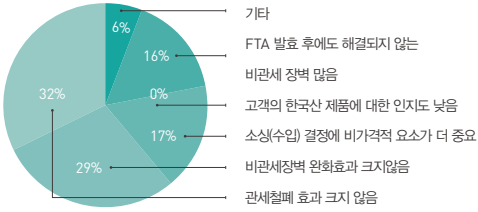
수입 확대 응답 이유로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가 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비관세장벽 철폐(16%),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14%), 기타(2%) 등 순으로 나타남



대한국 수입 및 소싱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음(32%), 비관세장벽 완화효과가 크지 않음(29%) 등 순으로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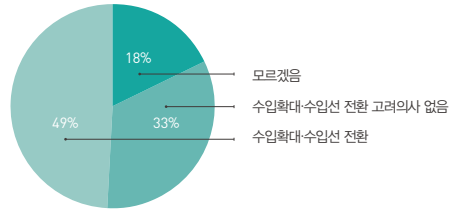
이외에 소싱(수입) 결정에서 비가격적 요소가 더 중요(17%)가 큰 비중을 차지



2. 중국진출 한국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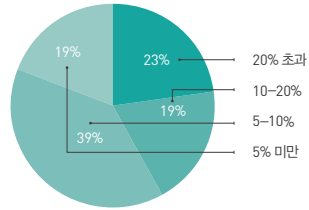
대한국 수입 확대 및 수입선 전환 응답이 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중국바이어의 응답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

수입확대 혹은 수입선 전환 의사 없음 응답은 33%, 모르겠음은 18%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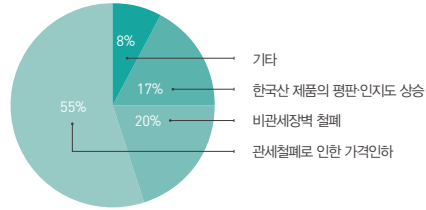
수입확대 응답 중 81%가 5% 이상 확대하겠다고 응답

수입을 5~10% 확대 하겠다는 응답은 39%, 10% 이상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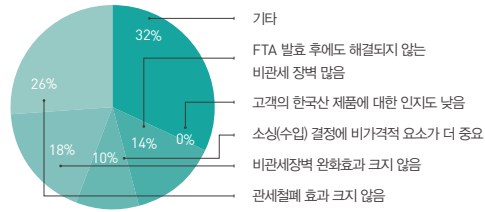


수입 확대 응답 이유로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가 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비관세장벽 철폐(20%),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17%), 기타(8%)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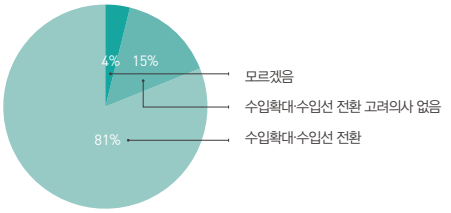
대한국 수입 및 소싱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기타(32%), 관세철폐 효과 크지 않음(26%),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 크지 않음(18%) 등 순으로 답변



Ⅳ. 업종별 의견 (상위 4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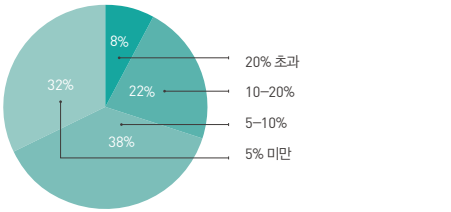
농업/식품(54개 업체)

수입확대 응답이 81%로 대부분의 바이어가 대한국 수입을 확대 의향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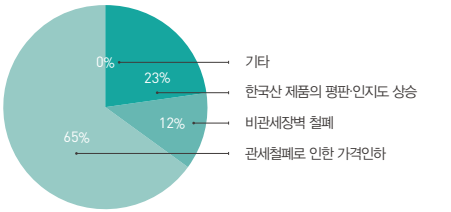
수입확대 응답 바이어 중 68%가 5% 이상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

5% 미만 수입 확대 의사를 표명한 업체의 비중은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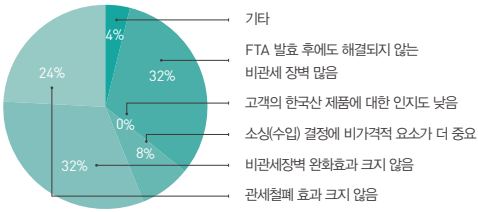
수입 확대 응답 이유로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23%), 비관세장벽 철폐(12%)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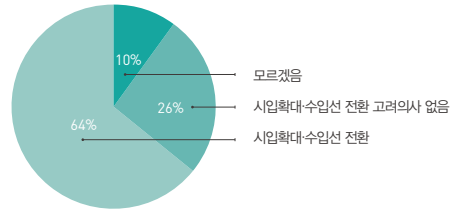
대한국 수입 및 소싱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발효 후에도 미해결된 비관세장벽 존재(32%), 비관세장벽 완화효과가 크지 않음(32%)이 같은 비중을 차지

이외에 FTA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음(24%), 소싱(수입) 결정에서 비가격적 요소가 더 중요(8%) 등도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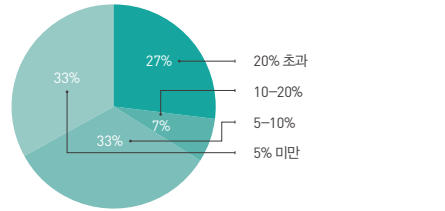
전기전자(39개 업체)

수입확대 응답이 64%로 다수의 바이어가 대한국 수입을 확대 의향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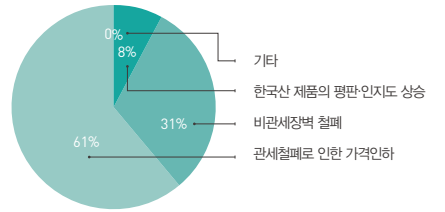
수입확대 응답 바이어 중 67%가 5% 이상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

5% 미만 수입 확대 의사를 표명한 업체의 비중은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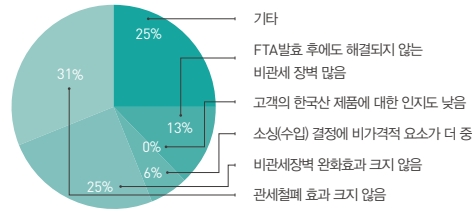
수입 확대 응답 이유로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비관세장벽 철폐(31%),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8%)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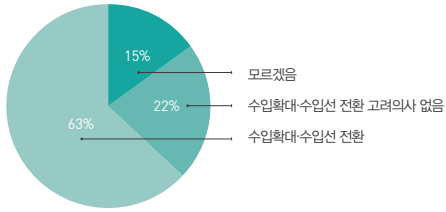
대한국 수입 및 소싱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관세철폐 효과 크지 않음(31%),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크지 않음(25%) 등 순

이외에 FTA 발효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비관세장벽 많음(13%)으로 그리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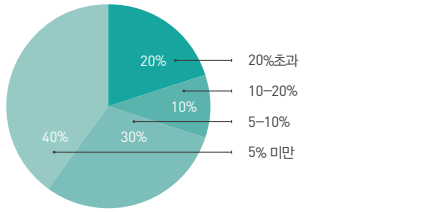


기계(27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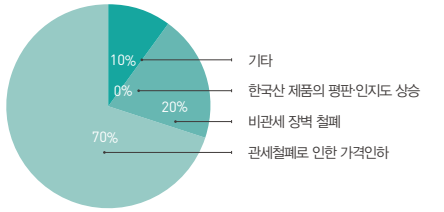
수입확대 응답이 63%로 다수의 바이어가 대한국 수입을 확대 의향 표시
수입확대 및 수입선 전환 의사 없음은 22%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모르겠음이 1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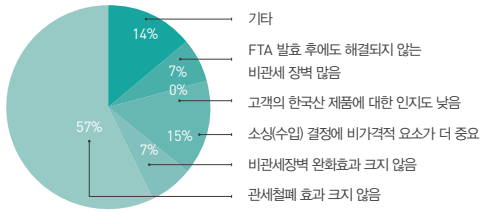
수입확대 응답 바이어 중 60%가 5% 이상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
5% 미만 수입 확대 의사를 표명한 업체의 비중은 40%



수입 확대 응답 이유로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가 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비관세장벽 철폐(20%), 기타(10%)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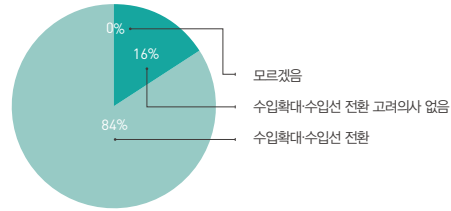
대한국 수입 및 소싱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비관세장벽 완화효과가 크지 않음(5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이외에 수입(소싱) 결정 요인에 비가격적 요소가 더 중요(15%)하다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



유통(44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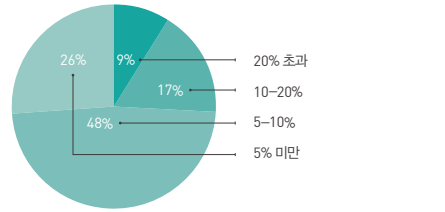
수입확대 응답이 84%로 절대 다수의 바이어가 대한국 수입을 확대 의향 표시

수입 확대 및 수입선 전환 의사 없음은 1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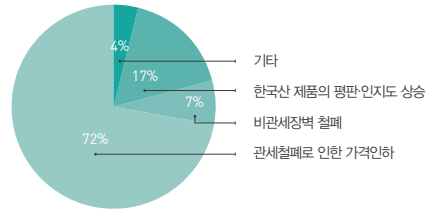
수입확대 응답 바이어 중 74%가 5% 이상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

5% 미만 수입 확대 의사를 표명한 업체의 비중은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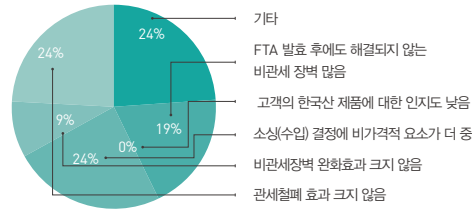


수입 확대 응답 이유로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한국산 제품의 평판 및 인지도 상승(17%) 순으로 나타남



대한국 수입 및 소싱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관세철폐 효과 크지 않음(24%), 소싱(수입) 결정에 비가격적 요소가 더 중요(24%)가 같은 비중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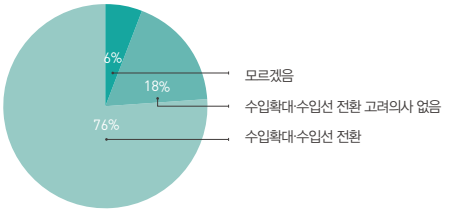


Ⅴ. 소재지별 의견

북부연해*

수입확대 응답이 76%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뒤를 수입확대 고려 의사 없음(18%), 모르겠음(6%)
순으로 나타남(조사대상 87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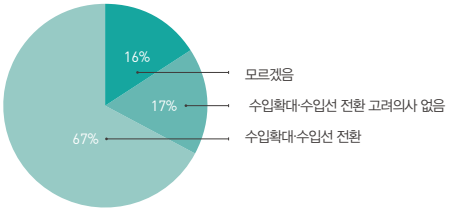
*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수도권 및 산둥성 지역



동부연해*

수입확대 응답이 67%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뒤를 수입확대 고려 의사 없음(17%), 모르겠음(16%)
순으로 나타남(조사대상 6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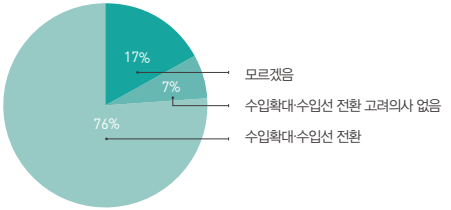
* 상하이, 저장, 장쑤성 등 창장하류 연해지역



남부연해*

수입확대 응답이 76%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뒤를 모르겠음(17%), 수입확대 고려 의사 없음(7%)
순으로 나타남(59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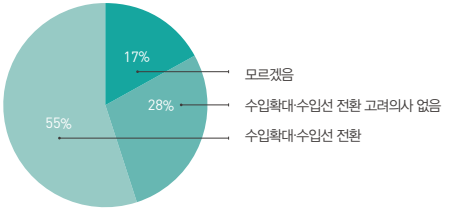
* 푸젠, 광둥, 하이난성 지역



황하중류*

수입확대 응답이 55%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뒤를 수입확대 고려 의사 없음(28%), 모르겠음(17%)
순으로 나타남(36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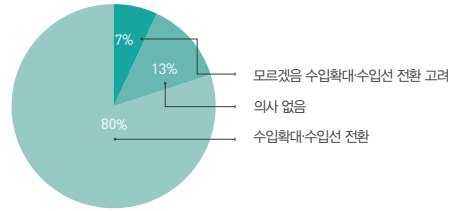
* 산시(山西), 산시(陕西), 허난, 네이멍구 등 4개 성 지역



창장중류*

수입확대 응답이 80%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뒤를 수입확대 고려 의사 없음(13%)
순으로 나타남(3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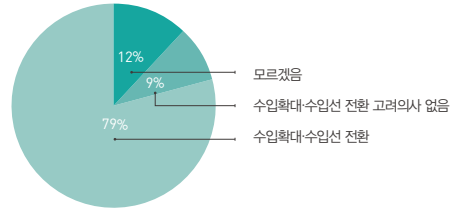
* 후베이, 후난, 안후이, 장시성 지역



서남*

수입확대 응답이 79%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뒤를 모르겠음(12%), 수입확대 고려 의사 없음(9%)
순으로 나타남(3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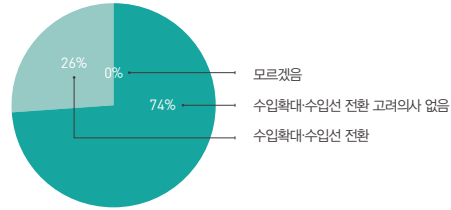
* 윈난, 꾸이저우, 쓰촨, 충칭, 광시 등 지역



동북*

수입확대 고려 의사 없음(74%)로 가장 큰
응답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 수입확대 및
수입선 전환 응답이 26%를 차지(27개사)

* 랴오닝, 지린, 헤이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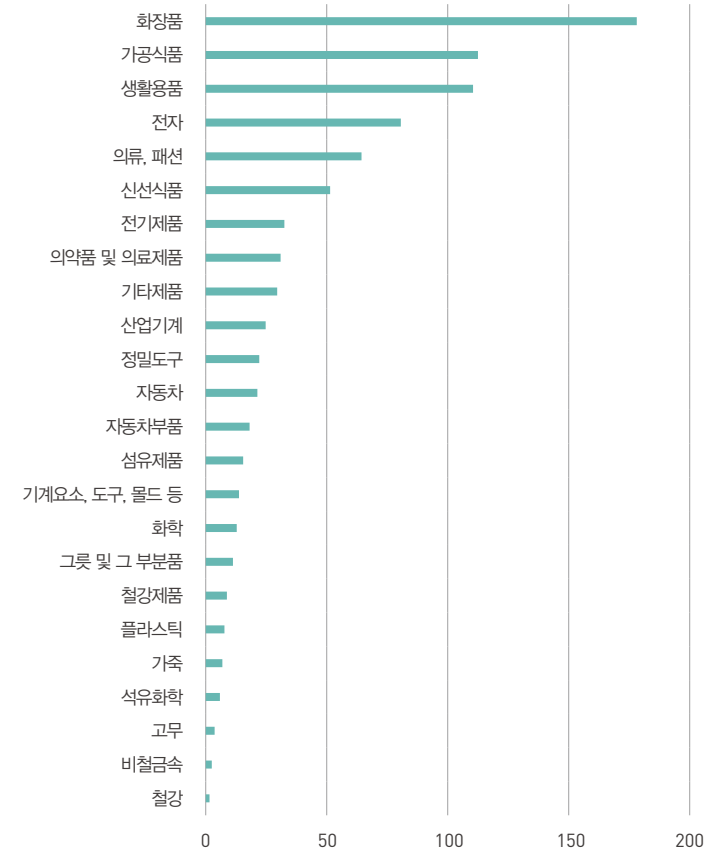


Ⅵ. 유망품목 선정

24개 품목 대상으로 FTA 체결시 유망품목을 선정한 결과, 화장품(20.5%), 가공식품(13.6%), 생활용품(13.2%) 등

다음으로 전자, 의류·패션, 신선식품, 전기제품, 의약품 및 의료제품 등 순으로 유망한 것으로 답변

번호	품목	응답수(복수응답)	비중(%)
1	철강	1	0.1
2	비철금속	2	0.2
3	고무	3	0.3
4	석유화학	5	0.6
5	가죽	6	0.7
6	플라스틱	7	0.8
7	철강제품	8	0.9
8	그릇 및 그 부분품	10	1.2
9	화학	11	1.3
10	기계요소, 도구, 몰드 등	12	1.4
11	섬유제품	13	1.5
12	자동차부품	18	2.1
13	자동차	20	2.3
14	정밀도구	21	2.4
15	산업기계	24	2.8
16	기타제품	32	3.7
17	의약품 및 의료제품	33	3.8
18	전기제품	35	4.0
19	신선식품	51	5.9
20	의류, 패션	65	7.5
21	전자	80	9.2
22	생활용품	115	13.2
23	가공식품	118	13.6
24	화장품	178	20.5
	합계	**868**	**100.0**


화장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전자
의류, 패션
신선식품
전기제품
의약품 및 의료제품
기타제품
산업기계
정밀도구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기계요소, 도구, 몰드 등
화학
그릇 및 그 부분품
철강제품
플라스틱
가죽
석유화학
고무
비철금속
철강
0
50
100
150
200

Ⅶ. 직접 듣는 업계 반응

중국진출 한국기업

업체명/업종	내 용
D 테크(주) (전기전자)	– 서비스, 투자 등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 중국이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어서 기대효과 만큼 결과 도출이 어려울 수 있음
D 중공업(기계)	–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소개자료 배포, 세미나 등)해 주기를 바람
G 정밀(기계)	– 한·중 FTA의 진행사항 및 결정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홍보해 주기 바람.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정보는 정확도가 매우 떨어져 혼동을 가져오며, 기업은 해당정보 검색에 어려움이 있음
S 공조(기계)	– 한·중 FTA에 대한 기대심리가 큰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검토 없이 FTA를 이용하기는 힘듦 – 득과 실을 명확히 하여 대처해야 함 – 현지에 투자한 소규모 기업들은 구체적 정보나 대책이 없는 실정임 – 우리 업종이 FTA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중소업체들도 많을 것임 – 전문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함
Q 사(무역)	– 각 부분 관세철폐 등의 계획을 빨리 확인하고 싶음 – 중국 내 생산 후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이 기대하고 있음(섬유)
Y 기전(전기전자)	–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전문가가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작은 업체를 위해 컨설팅 해주는 기관을 좀 알려줬으면 함
W 전자(전기전자)	– 변경되는 관세 및 수입절차가 불확실하여 현재 파악 중임
Q 사(섬유)	– 한·중 FTA 발효 시 혜택을 받게 되는 '해당품목 리스트'를 재중 한국 업체들에게 제공해 주기 바람 – 한·중 FTA 발효 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수책'을 중지하고(FTA발효상황에서) 일반수입'으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단순히 '수책중지 → 일반수입'의 형태로 임의 전환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함 – 중소기업의 특별한 반응은 아직 없어 보임
W 사(기타)	– 중국시장 진출 희망 한국 업체 대 중국시장의 유통 특성에 대한 교육실시 요망. 중국시장 진출 시 중국시장에 맞는 홍보 및 영업방식을 진행해야 하고 단순히 판매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함 – 한국 FTA 발효 후 한국제품이 많이 수입되긴 하겠으나 한국 제품의 영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음.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 고안품(goodsofidea)등 제품 개발 필요
S 무역(무역)	– 한·중 FTA의 실질 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 –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는 바이어 입장에서 볼 때 실제효과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함 – 특히, 화장품위생허가 등의 비관세장벽은 양국 합의문에서 향후 처리계획이 애매하게 기재된바, 더 구체적인 철폐조치 필요
S 식품(농식품)	– 한·중 FTA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 – 한·중 FTA 발효에 따라 농수산업 등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 –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책 마련과 함께 한·중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정책과 대중수출품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유관기관 간 협조 지원방안 필요

중국 바이어

업체명/업종	지적 내용
Q 용품(무역)	– 한국 플라스틱 제품은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나, 가격은 중국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한국 플라스틱 제품(통기성 필름) 수입 시, 아태협정(APT)을 활용하여 관세율을 6.5%에서 4.5%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요구됨 – 한·중 FTA 발효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절차 간소화 및 관세율 인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바람
S 무역(무역)	– 앞으로 한국제품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절차나 조문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
S 실업(무역)	– 양국 기업 협력을 통해 상호 학습이 증가하기를 기대하며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를 적극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함
S 정보기술(통신)	–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한·중 FTA를 맞아 중국내 각 업종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 한국의 고속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중 FTA 발효 이후 상호 장점을 협력하기를 희망함
S 전자(전기전자)	– 한 분야 제품의 비용절감은 다른 분야로 파급되므로, FTA의 효과는 전 분야로 파급되게 됨 – 한국의 경쟁력 업종은 전자, 화장품, 소비품 등이라고 생각함
S 통신(전기전자)	– 한·중 FTA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서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제품이 중국에 더욱 잘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S 디지탈(전기전자)	– 한국산 전자통제시스템, 가전분야 대리상으로서 한·중 FTA에 관심이 큼. 현재 한국산 제품의 중국내 성과는 매우 양호한 수준임 – 관세 철폐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임
J 에너지(에너지)	– 중국의 신에너지 및 환경 시장이 양호한 가운데 한국의 기술은 중국기업이 배울 점이 많음 – 한·중 FTA 발효 뒤 양국 기업 간 교류를 통해 중국이 더 큰 시장을 제공하고 한국기업이 중국에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함
S 식품(농식품)	– 한·중 FTA에 따른 최대 수혜 분야는 소비재로 화장품, 가공식품 등 소비재의 경우 FTA 발효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음 – 전기전자분야도 FTA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별첨1] 바이어 설문조사 양식

한·중 FTA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한·중 FTA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누출되지 않을 것이며 조사의 목적에만 활용될 것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정보

1

업체 명칭 : ( )

2

주력 제품 :

수송장비	ⓐ	기계	ⓑ	전기/전자	ⓒ
섬유/의류	ⓓ	의료/의약품	ⓔ	화학	ⓕ
펄프/종이	ⓖ	농업/식품	ⓗ	오락	ⓘ
사업서비스	ⓙ	유통	ⓚ	교육	ⓛ
에너지/환경	ⓜ	물류	ⓝ	기타	( )

3

귀사는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

귀사는 한국기업입니까, 아닙니까?

ⓐ 한국기업(한국인 투자기업)

ⓑ 글로벌(중국) 바이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귀사의 계획?

한·중 FTA가 곧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게 되면 양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예정입니다.

5

한·중 FTA가 발효되게 되면 당신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거나 타국으로부터의 소싱을 한국으로부터의 소싱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 예 (① 5% 미만 ② 5–10% ③10–20% ④ 20%초과) (5번으로 이동)
ⓑ 아니오 (6번 문항으로 이동)
ⓒ 모르겠음

6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국의 관세 철폐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싸질 것이므로.
ⓑ 한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없어지거나 낮아질 것이므로.
ⓒ 한국산 제품에 대한 평판이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 기타 (　　)

7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한국산 제품으로의 소싱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관세 철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 소싱(수입) 대상 국가를 결정하는데 가격보다 비가격적 요소가 더 중요하므로
ⓓ 고객이 한국산 제품에 익숙하지 않아서
ⓔ FTA가 발효돼도 해결되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많을 것이므로.
ⓕ 기타 (　　)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으로부터 어떤 제품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전기제품(중전기기, 전선 등)
2	화장품
3	전자(핸드폰, 가전제품, 전자부품 등)
4	의약품 및 의료제품
5	철강
6	플라스틱(파이프, 필름 등)
7	철강제품
8	고무(고무판, 벨트, 타이어 등)
9	자동차
10	가죽(가죽, 가죽제품, 모피 등)
11	자동차부품
12	가공식품
13	비철금속(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
14	신선식품
15	그릇 및 그 부분품
16	생활용품(취미, 여행용품, 장난감, 악기, 가구, 가정용품 등)
17	화학(정밀화학, 비료, 세라믹제품, 종이제품 등)
18	산업기계(공작, 건설, 농업, 기타 산업기계 및 장비)
19	석유화학
20	정밀도구(시계, 이료기기, 계략 및 측정기기)
21	섬유제품(원사, 직물)
22	기계요소(볼트, 스크류 등), 도구, 몰드 등
23	의류, 패션
24	기타 제품(인쇄제품, 수집품, 유리 및 콘택트렌즈, 위생용품, 보석, 가발 및 눈썹 등)

(한국기업) 한·중 FTA 발효를 맞이하여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은?
(무역관당 2건 이상, 별지에 간단히 작성 요망)

한·중 FTA 발효를 맞이하는 중국기업(혹은 외국기업)의 코멘트
(반응, 기대효과, 건의 등) (무역관당 2건 이상, 별지에 간단히 작성 요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한·중 FTA의 효과

중국 진출 기업 및 바이어 긴급 설문조사

KOCHI자료 15–011
ISBN : ISBN: 979-11-86926-47-5 (93320)

감 수 김재홍
발 행 처 KOTRA
편 집 인 윤원석
작 성 자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 김주혜
발 행 일 2015. 12
디 자 인 2b 02.545.4633
인 쇄 처 전우용사촌 02.426.4415

Copyright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본 책자를 무단전재 및 재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OTRA 중국사업단 (1600–7119)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의 효과

중국 진출 기업 및 바이어 긴급 설문조사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